

2009년 서부 연합 야영회 강의록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김 명 호



서부 연합 야영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글머리에 3

1. 성경 바르게 읽기 5
2. 삼위일체 바르게 알기 20
3. 여호와의 이름 바르게 알기 33
4. 여자의 후손 바르게 알기 48
5. 세 천사의 기별 바르게 알기 58
6. 성령 충만 바르게 알기 69

글머리에

금년 서부 연합 야영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은혜를 입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최한 교회에 감사합니다. 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강의록을 준비하고 생각하니 이것을 소책자로 묶어서 성도들의 손에 나누어주면 도움이 되고 두고두고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소책자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강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의 내용 전체를 다 서술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글입니다. 그래도 전체를 다 썼다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론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여기 수록한 것은 필자가 여러 곳에서 강론해온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강론한 세월이 필자의 생각으로는 30년도 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내용이 된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꼭 알도록 도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다섯 번의 강론으로 마쳐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유의하여 들으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이 위급한 흔들림의 시기에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발을 든든히 세우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늘까지 힘차게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필자에게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번 야영회 기간 동안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젖는 복된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소책자를 서가(書架)에 두어 참고가 되어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일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며 머리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7일
테절트 핫 스프링스
산하신토 산정이 보이는 서재에서
주의 종 김명호 識

1. 성경 바르게 읽기

(창세기 1:1의 기별)

[눅10:25,26]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序; 인사, 오랜만에 야영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라는 총 주제를 걸고, 오늘 첫 시간에는 성경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라는 말씀은 골2:2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골2:2,3).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지 않으면 이 비밀을 잘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말이지요. 오늘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는 첫 걸음으로 성경 바르게 읽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1.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에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내용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읽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무남독녀뿐인 어떤 부자가 70에 부인이 죽었는데, 갑자기 아들 생각이나서 젊은 처녀를 후처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아들이 났습니다. 그는 이 아들에게 그의 많은 재산을 상속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죽으면 이미 장성한 자녀들 둔 딸이, 이 갓난아이 아들과 그 엄마를 헤코지하고 자기 재산을 차지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언을 써야겠다고 궁리하는 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병간호를 하는 젊은 부인에게 이런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숨을 거두게 되었고 임종 때 둘러앉은 자녀 손들에게 유언을 써 두었으니 장례식 후에 열어보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그 유언 봉투를 열어보니 이런 말이 한 줄로 깨끗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七_칠十_십生_생子_子非_非吾_吾子_子

家_가産_産傳_傳之_之婿_婿非_非吾_吾子_子

이것을 본 딸은 입이 딱 벌어졌고, 젊은 아내는 얼굴이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풀면, “칠십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산은 사위에게 전한다. 다른 사람은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딸

은 그 젊은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다고 생각하였고, 젊은 부인은 그 영감이 자기를 부정한 여자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유산도 돌아올 것이 없게 된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이 엄마는 아이를 기르면서 그 입에 항상 죽은 영감에 대한 원망과 악담이 그치지 않았고, 아이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20세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엄마에게 항상 말했다는 것과 유언장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보이고 해석을 부탁했더니 여전히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들은 아버지의 말을 자세히 얘기했더니 변호사가 그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살피고 무릎을 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라고 쓴 것이니 소송을 하여 재산을 찾으라고 말했고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답니다.

그가 소송에서 한 해석은 七월十_십生_생子_子非_非吾_吾子_子라?

家_가產_産傳_傳之_之지 囑_서他_타人_인 勿_勿取_取라고 읽고 해석하였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해석이 되었을까요? 유언을 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언을 읽은 것과 자기 생각으로 읽은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내 마음대로 공부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사55:8,9]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처럼 높습니다(천양지차 天壤之差).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풀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읽어왔습니까?

[고전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월동안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문화와 학문과 지식의 자(尺)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풀이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 못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계시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1812-1889)은 영국 빅토리아 왕조 때의 시인입니다. 그의 시는 그가 죽은 다음에 유명하여졌다고 합니다.

그의 노년에 런던 거리를 걷고 있는 중에 허름한 이층집에 “브라우닝 시 연구회”라는 간판이 걸린 것을 보고 흥미를 느끼며 낡은 계단을 올라 방에 들어갔습니다.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래 전 자기의 시를 칠판에 써 놓고 한 사람이 연구 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우닝이 들어보니 너무 엉뚱한 발상으로 자기의 시를 시인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이없는 마음으로 듣다가, 강론하는 사람이 혹 누군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지나가다 들른 사람인데 말해도 되겠는지 정중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말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우닝은 자기가 그 시를

쓸 때의 의도와 의미를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는 빈정거리는 음성으로, 노인장은 시에 대하여 모르면서 이런 자리에서 발언을 요청했느냐고 핀잔을 주고 나가라고 말해서 시인이 직접 설명하는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이와 같은 태도로 무시하지 않는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지 못하면 성경에 대하여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40일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요16:12,13]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시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요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

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영원히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전2:10-14]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 성경을 풀이하려는 것은 그 부자의 딸이 아버지의 유언을 자기 마음대로 풀이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풀이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석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창40: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

컨대 내게 고하소서.

3.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길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줄 압니까? 그것도 성경에 지도해놓았습니다.

[고후10:4,5]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생각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 지식과 학문, 문화적 영향 모든 선입관을 다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출3:4,5]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룻4:7,8]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자기의 모든 생각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권리 다 벗어야 합니다. 그

리고 오직 말씀의 인도대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28:13]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우리는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길을 따라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지도하십니다.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산 성경이 가는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신학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신학은 기독교 종교의 역사적 발전과 함께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성경 말씀 일변도로 형성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고전4: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불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는데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사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씀은 요즘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짝이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는 대명사 “헤나”의 복수인 “메헤나(מֵהֵנָה)”인데, 이것들의 선행사(先行詞)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 거기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책이 무엇입니까? 책은 원어로 “세페르(סֵפֶר)”입니다. 이 책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이것들”이 무엇인지 논하는 것은 논리의 정도(正道)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천연계를 뜻합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이사야 34장 15절까지입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천연계와 계시의 말씀 모두를 뜻한다고 이해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그 짝을 찾아 해석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지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출3: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채립연수원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에 틈이 나면 뉴스타트 후원회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오늘과 같은 강론을 하였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의 7할 정도가 비 재림 교인입니다. 거기에는 불자(佛子)들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다른 개신교인들도 있으며 비신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고 강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인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풀어야 합니까?”

말이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계시의 내용이 그냥 읽어서 척척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에 제시한 출애굽기 3장의 불붙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출3:6)고 하신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좌중은 한 참 조용하였습니다. 드디어 의문을 제기한 자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지기도 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옳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런 뜻을 아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깊은 뜻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시

는 뜻이 있겠지요.”

이것도 옳은 대답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12장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18-27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한 여자에게 일곱 형제가 장가들었다가 다 죽었는데, 부활할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하는 질문에 예수께서 하신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는 바로 가시떨기나무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막12:26,27]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즉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감히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좋은 예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이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어느 말씀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엉뚱한 것 같아 보여도 성경이 그렇게 풀이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4. 성경 읽는 지침을 주심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인 된 사람들이 읽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20:30,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5:39,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원을 위하여 주신 책 맨 처음에 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에 대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선포된 말씀 안에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도록 그 지침을 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별로 왕래가 없는 아주 부자(富者)가 이웃으로 있는 소시민이 가끔 울타리너머로 부잣집에 부랑패들이 들이닥쳐서 부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뜯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 주인의 모습이 얼마나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안쓰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그를 도울 수 있으면

도울 마음이 간절해져서 하루 저녁에 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웃에 있어도 별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찾아온 이웃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부자 주인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이 찾아온 이웃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태권도가 9단입니다. 합기도도 9단이고요, 검도도 5단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의 무술 실력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찾아오는 부랑자들을 넉넉히 퇴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제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부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도울 것이며 과연 도울 능력이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웃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부랑자들을 넉넉히 물리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이 때는 일반적으로 계산한 성경 연대로, 아담을 창조한 후 25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맨 먼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롬1:19,20]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1:1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1) 창조론적 시각을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되 없는 것에서 있도록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것을 믿고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신 사실임을 기억하고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인데, 그것은 구원하기에 능한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 구원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은 처음부터 사망이 된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곧 구원하여 영생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얻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사는 상태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그저 이런 것이고 다만 정신적인 어떤 것

뿐이라면 참 한심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은 아직 미래에 속합니다.

[고후4:16-18]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롬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창1:1은 또

3) 재창조 곧 종말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 하실 때에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것은 재창조이며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론적, 구속론적, 종말론적 시각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길을 따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므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적어도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4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 안에 있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일을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2. 삼위일체 바르게 알기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序;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 용어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삼위일체를 시인하는 여부로 이단(異端) 판단을 하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인들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 복수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복수(複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원어에는 “엘로힘(אלהים)”인데 복수입니다. 단수(單數)는 “엘” 또는 “엘로아흐”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약 2,600번 이상 쓰였습니다. 이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엘로힘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神像(창 35:2; 출20:23; 신7:25), 신들(출23:13; 출23:24; 출23:32; 출23:33 등)].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로 신(神)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의 신(엘로힘)은 다곤이며, 모압 사람들의

신은 몰록입니다. 이처럼 이방신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킬 때에도 엘로힘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엘로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경의 하나님(엘로힘)의 고유명사 이름입니다.

이 엘로힘이란 어형(語形)은 히브리어에서만 나올 뿐, 다른 셈어에서는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성경 아람어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엘로힘이 삼위일체 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명임을 확증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을 지칭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신들에 대하여서도 같은 말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로 계시(存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수로 계시(存在)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唯一)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말씀에서 이름을 가지신 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 셋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라는 단어가 복수(複數)가 되어야 문법적으로 옳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이름’은 단수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하나뿐인 공동(公同)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뿐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다 여호와이시며, 그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아니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삼위가 스스

로 계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것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욥11:7,8]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우리는 계시해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29:29]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내주지 않은 것을 알려고 무리한 추측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신학(교리)적 용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머리는 셋인데 몸뚱이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체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부부일체(夫婦一體)라고 할 때에 남편과 아내의 몸뚱이가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인격이 동등하고 계획과 목적과 행사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도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몸뚱이가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임금이, 제자에게 스승이,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권위와 위치가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것처럼 성경에 계시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 다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 존재에 있어서 동등한 것입니다.

2. “우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창3:22,23]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본래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일종의 위계질서(位階秩序) 같은 구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구원을 위하여 각각 맡은 업무(?)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런 구분으로 계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모두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여호와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다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덴동산에서 내어 보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단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신 분은 다 선악을 아시는 여호와이심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 우리 중 둘이라고 하시는 복수 존재로서 여호와이심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신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니.

하나님(엘로힘=복수) 여호와와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 더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면 ‘유일하신 여호와’인데, 이 말씀은 절대 단일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복수 존재, 곧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그분들만이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는 유일하시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에 그 세분 외에는 여호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꿰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 말씀은 창조하는데 여호와와 함께 창조한 다른 존재가 없다고 단호히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함께 한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한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외에는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한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한 존재가 있다면 그분도 여호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으며, 성령께서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계시합니다.

[요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 중에 하나도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요1:14).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은 것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104:30]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욥33:4]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도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시니 여호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하는 일에는 여호와 외에 함께 한 이가 없이 여호와 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는 다 여호와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온 우주에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개체로 계시는 분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은 절대 하나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분들만이 유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인(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12:1]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창조자라는 원어는 복수(複數)입니다(보레이카 רַבּוּת :단수는 보레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온 우주에 그분들 외에는 자존자(自存者)가 없는, 자존하신 분으로서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와는 세 개체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자들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지만 삼위가 계시는 것은 확실한데 또한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고 연구하여 만든 말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곧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모두 스스로 존재하셨다, 온 우주에는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세 분뿐이다’ 라는 뜻이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한 신성이 세 개체로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 여호와께서 세 개체로 계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3. 세 개체가 한 이름을 가지심

1) 아버지 여호와

[신32:6]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일으킨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의를 달 여지가 없습니다.

2) 아들 여호와

[사43: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자가 여호와라고 계시합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행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구원자 여호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칭호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를 헬리어로 적어서 읽는 발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인 예수님에게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11은 구주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마19: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인데 그것을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시24:7-10]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 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말씀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분은 전쟁하러 나갔다가 개선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도록 문들이 열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분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확실합니다.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여호와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며 돌아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의 왕 여호와는 예수님이십니다.

3) 성령 여호와

[호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계시합니다.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는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룬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계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사32:15]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밭은 삼림이 되게 하는 것은 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계시합니다. 비가 오는 것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의 표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 늦은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와 성령이심이 확실합니다.

성경의 이런 계시에 의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세 개체, 신약성경에 의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삼위가 계시고,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그 존재성에 있어서 다 “스스로 계신 분(自存者)”이기 때문에 일체인 것입니다. 그 외에 능력, 목적, 사상 등이 일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언의 신의 증언들 중에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옮겨보았습니다.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원고 145, 1901년

The Eternal Dignitaries of the Trinity.— The eternal heavenly dignitaries God, and Christ, and the Holy Spirit—arming them [the

disciples] with more than mortal energy, . . . would advance with them to the work and convince the world of sin.— *Manuscript* 145, 1901.

성령의 개성 —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원고 66, 1899년—(아본 데일학교 학생들에게 한 연설에서)

성령께서는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심령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증거가 생길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신다는 증거가 따르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 원고 20, 1906년.

Personality of the Holy Spirit.— We need to realize that the Holy Spirit, who is as much a person as God is a person, is walking through these grounds.— *Manuscript* 66, 1899. (From a talk to the

students at the Avondale School.)

The Holy Spirit is a person, for He beareth witness with our spirits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When this witness is borne, it carries with it its own evidence. At such times we believe and are sure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 . .

The Holy Spirit has a personality, else He could not bear witness to our spirits and with our spirits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He must also be a divine person, else He could not search out the secrets which lie hidden in the mind of God. "For what man knoweth the things of a man, save the spirit of man which is in him? even so the things of God knoweth no man, but the Spirit of God."—*Manuscript 20*, 1906.

제 삼위 되시는 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는 다만 신성의 제 삼위 되시는 분, 곧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특별증언 A. No. 10. 37 (1897)

The Power of God in the Third Person.— The prince of the power of evil can only be held in check by the power of God in the third person of the Godhead, the Holy Spirit.— *Special Testimonies, Series A*, No. 10, p. 37. (1897)

지극히 높으신 세 분의 능력과 협력 — 우리는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특별증언 B, No. 7. 51 (1905)

In Co-operation With the Three Highest Powers.— We are to co-operate with the three highest powers in heaven,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 and these powers will work through us, making us workers together with God. — *Special Testimonies, Series B, No. 7, p. 51. (1905)* <이상 전도법 616쪽>

4. 아버지 여호와와 남편 여호와

우리는 아버지 여호와가 계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신32:6).

그런데 또한 남편 여호와가 계신다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사54:5]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버지 여호와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백성의 남편이라고 부른 곳은 신약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호와는 예수님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 외에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여호와이시며, 성령도 여호와 하

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성경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자세하고 복잡한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만큼만 말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4:24과 함께 이 설명들을 익숙하게 이해하면 삼위일체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 여호와와 이름 바르게 알기

[호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序; 삼위일체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공동으로 한 이름을 가지셨는데,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은 성경 내용 전체가 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이름을 바르게 알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하십니다.

1. 이름과 실체

[사30:27] 보라 여호와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뿔뿔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같으며.

이 말씀은 이름과 실체가 동일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여호와라는 이름은 동일하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이름을 아는 것은 곧 여호와(יהוה)를 아는 것입니다.

[시9:10]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잠18:10]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

함을 얻느니라.

[시124:8]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와 이름을 모르면 의지할 수도 없고, 그리로 피할 수도 없으며 도움을 부르짖을 수도 없다는 사상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26회 이상 나타납니다.

[출6: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출6: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레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20:24]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레26:13]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 된 것을 면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땅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민3:41]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

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사41:4]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사43: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꿰으며 땅을 베풀었고

[사45: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사45: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45:18]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51:15]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흥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겔12:25]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호13:4]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슌10:6]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
움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
리라

“나를(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
호와인 줄 알고”라는 말이 73회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
는 말은 단독으로 쓰인 곳이 없고 여호와라는 말과 함께 쓰인 곳이 5회
입니다(출16:12, 사45:3, 겔20:20, 39:22, 28).

[시91:14]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기념칭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의 호소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은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
롭고 두려운 이름”(신28:58)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대상16:29). 그리고 이 이름을 전파하되 기념의 사
실을 확실히 전해야 합니다.

[신32:3]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
께 돌릴지어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 하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전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였습니다.

[왕상8:20]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3:2, 5:3, 5, 8:17 등)

시편에 많은 구절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이름은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아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대체적으로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2. 기념 칭호

[호12:5]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출3:13-15]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호12:5의 “기념칭호”라는 말과 “기억할 나의 표호”라는 말은 원어로는

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표가 되는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어떤 기념이 들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 기념이 무엇 인지를 찾아봅시다.

1) 존재 양식(樣式)의 기념

여호와의 이름이 첫째로 기억하도록 하는 기념은 이 이름을 가지신 분 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출3:13,14]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 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 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근원이 우리 밖(外)에 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 은 존재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받았습시다.

[고전4: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나 외의 누군가에게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할 수 없습니다.

*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다른데서 받은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찬양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심의 첫째 이유가 바로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만상의 어떤 존재에 대하여서도 구별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 창조주로서의 기념

[롬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40: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전12:1]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행17: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창조는 무(無)에서 유(有)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창조주는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며, 그것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있는 자”께서 “있으라”하시니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있으라”는 말씀으로 만유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 중에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 있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전4: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왜 숨 숨니까? 왜 먹고 마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고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매일 매 순간 지적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사람의 생존이 결코 자기 스스로에 의하여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절하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구약성경에는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온 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피조물에게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그분의 최상의 권위를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도 그분이 창조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 심판주로서의 기념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9:16,17]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었혔도다 (히가온, 셀라) 17 악인이 음부로 돌아감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이 말씀은 현대 번역들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시9:16]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 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 드는구나.(새번역)

[시9:16] 여호와는 의로운 심판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악인들은 그들이 행할 일로 함정에 빠진다.(현대인의 성경)

[시9:16]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닷에 걸리는도다.(한글 킹제임스)

[시9:16]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알리셨으니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닷에 걸렸도다.(우리말 성경)

이 번역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여 자기를 알리신다고 번역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로 사람들이, 또는 이성적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피조물 중에 누군가가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존재 한다고 주장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 여호와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 당시 바로입니다.

[출5:2]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7:16-18]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애굽에 행하신 심판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주로서의 기념에는 이런 사실 보다 더 기본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주만상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있게 하시므로 있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존재하고 존속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께서 창조해 준 그 존재와 생명을 반납하라고 요구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한 자는 여호와께서 있게 해 준 자기 존재와 생명을 여호와께 반납하고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그가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자기가 존재하고 존속한다고 주장한 그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납하면 그는 존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으로 자기를 알게 하신다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그 존재의 반납을 요구할 때 그

런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고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여호와를 알았으나 너무 늦었고, 반납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가 참으로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자기 존재를 반납합니다.

[빌2:10,11]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계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주장을 제일 먼저 한 존재가 바로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존재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히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루시퍼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또 마귀와 생각을 같이한 사람들도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시37:10]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

도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해준 자기의 존재를 영원히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납하라고 하시는 것이 심판이요, 반납하는 것이 심판의 집행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영원히 존재를 상실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4) 생명과 구주로서의 기념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생명과 구원의 주로서의 기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겔18: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시36:9). 그분과 관계를 끊으면 바로 생명의 줄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죽는 자가 됩니다.

[창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존재를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실 리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죽는 자가 되었어도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보증이 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생명과 구원의 주로서의 기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고백할 때 그 이름이 그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과 생명이 되십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은 부모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에는 자녀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그가 창조한 피조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감당한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에 이미 구원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 드러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이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구원하는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때에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딤후1:1-3]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

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포함된 구원과 생명의 기념을 구원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실 때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 나타낸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롬16:25-27]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1:9,10]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이 되었어도, 영세 전부터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낸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것을 보증합니다.

[욘2: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롬10:9,13]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3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영세 전부터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죄가 발생했을 때[자기 때에(딤후1:3),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롬16:26)]에 나타내어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과 생명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 여호와의 선한 형상

여호와의 이름은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그 이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름은 또한 그분의 선한 형상입니다.

[출33:18,19]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34:5,6]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라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신 하나님의 선한 형상에는 그 이름을 반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4. 여자의 후손 바르게 알기

[창3:14,15] 여호와 하나님은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序; 이 시간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진정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신 말씀이고 학자들은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선악과를 먹고 죽은 사람에게 최초로 선포하신 생명을 회복시켜주시겠다는 복음 진도의 선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자의 후손입니까?

1. 우리의 실상, 죄, 죄인, 죄들

[마8:21,22]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머러스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죽은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사되는 죽은 자와 장사하는 죽은 자입니다. 장사하는 죽은 자를 우리는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인류의 실상입니다. 예수 없는 인류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다 죽었습니다.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인류는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인류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오직 한 혈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을 깨닫는데 중요한 기초적 사실입니다.

[행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인류는 다 죽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습니다. 요1:29은 단수입니다. 롬3:23, 5:12의 죄도 단수입니다. 마1:21의 죄는 복수입니다. 그 외에도 복수가 많이 쓰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본적인 죄를 가리킬 때 단수를 썼고, 근본적인 죄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일상에 저지르는 일반적인 죄를 표현할 때는 복수를 썼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은 사람들의 썩는 상태가 가득합니다. 죽은 자들의 썩는 현상을 우리들은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바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의 썩어져가

는 모습입니다.

[엡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성경은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하여 가르칩니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썩고 있는 것입니다.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롬3:23과 같은 내용인데 모두 과거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 언젠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하여 사람 창조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람을 창조하심

[창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은 처음에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게 최초로 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 입니다.

[창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

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최초로 죽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 혼자 들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여자를 만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창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도 독처하게 하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혈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2:21-23]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자를 남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전11: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위탁되어 있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한 혈통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生命의 一元性**(한 혈통)을 확정한 것입니다.

[창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세상 맨 나중 사람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창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을 위탁받은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생명을 잃은 상태, 곧 사망으로 태어납니다. 세상 맨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도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인류는 속절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45:18] 여호와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대속으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창3:15의 선언입니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생명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는 **3가지 사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1. 구주의 탄생; 여자의 후손
2. 구주의 고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함

3. 구주의 승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함

창세기 3:15절 이후의 모든 말씀은 창3:15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제라(צֶרֶא)”인데 씨라는 말입니다. 여자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디다. 그런데 왜 여자의 씨입니까?

3. 왜 여자의 후손인가?

한 혈통으로 내려올 생명의 씨는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사람에게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육체가 됐다고 합니다.

[엡4: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창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됴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담의 후손들은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육체뿐입니다.

[시78:39]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다.

육체의 생명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게 하신 것은 죽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아담의 죽은 생명의 씨와 상관없는 한 생명이 원래 씨가 없는 여자를 통하여 오셔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여자의 후손 안에서 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

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즉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주는 아담의 죽은 생명의 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진 사람으로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순결한 처녀에게서 탄생해야 합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그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성인군자인지 모르지만 생명과 존재로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도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구주는 남자의 씨와 전혀 상관없이 탄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눅1: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순결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는 아담의 씨 곧 남자의 씨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갈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창3:15과 사7:14을 반영하는 말씀

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언제 지었습니까?

[창3:19,20]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선언 후에 아담이 지었습니다. 이것은 창3:15의
선포에 대한 아담의 신앙고백입니다. 이 고백 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이 어떻게 대속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 가족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
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여 죽게 될 것인데, 아담
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을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의기소침했다가 아마도 신이 났을 것입니
다. 그는 속히 자기에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들(씨)이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창4:1]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는 이 아들(씨)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득남 하
였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
하매”라고 기록하여 오해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남자의 씨이지
여자의 씨가 아닙니다.

[마1: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
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한 일이 없이 낳은 아들이라고 계시로 밝히셨습

니다. 결코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정말 아담의 생명의 씨와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생명이 씨가 되어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요 아담 안에서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담과 그의 후손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죽을 필요도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곧장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확실한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후5:14-17]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 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행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단이

다원주의를 용납합니다. 구주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5:24,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생명의 회복이며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며,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확실히 아는 무리들입니다.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기독교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며 그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며, 왜 그런지를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재림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5. 세 천사의 기별 바르게 알기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序; 이 시간으로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라는 총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의 기별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천사의 기별 바르게 알기”라는 제목으로 심판과 창조주 경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 두 가지 종교

우리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 중에 참으로 특별한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의 특별한 필요를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창조주를 믿는 종교와 진화론을 믿는 종교이고, 내용상으로는 존재론이 기초가 된 종교와 도덕론이 기초가 된 종교입니다. 진화론 종교는 도덕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짐승의 성질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다룹니다. 즉 위협과 형벌로서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권선징악의 채찍을 휘두릅니다.

사람들은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스스로는 모릅니다. 즉 자기 존재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척 알고 싶은 것입니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를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존재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너무 끔찍하지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해도 짐승입니다. 진화론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학설입니다.

[사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유10]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훼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벧후2:12]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훼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성경은 진화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2. 시대의 사명을 가진 우리교회

[단8: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문제는 우리교회를 이 시대에 증거해야할 특별한 기별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끝이 1844년입니다. 성소정결 사업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몸 성전인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

로 진리가 회복되어 참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 회복되었습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1장에는 성전을 척량(尺量)하라는 기별이 있습니다(1절). 성전을 척량하고 하늘 지성소가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언약궤가 보입니다.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전문제를 연구하고 하늘 지성소가 열린 사실을 알고 거기 하나님의 계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넷째 계명은 성경 종교가 창조론, 존재론이 기초가 된 것을 깨닫게 하였으며, 우리가 그것을 거룩히 지켜야 할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결과로 남은 자손이 성립된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매우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는 2,300주야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짐작하고 진리를 다른 면으로 혼잡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몇 가지 거짓 사상을 일으켰습니다.

1830년에 몰몬교를 일으켰습니다.

1827년에 조셉 스미스가 모로나이 천사의 계시로 몰몬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선지자로 자처 하고 1830년에 세칭 몰몬교를 창설하였습니다.

1848년 공산당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 출판되었습니다. 금년(2009)이 150주년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2,300주야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루어질 성경 신앙 회복의 장애물로 사단이 마련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데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상들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출현은 곧 참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짐작한 사단이 거짓 선지자를 먼저 일으킴으로 참 선지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공작이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 교회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려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은 전파되었습니다.

3. 창조주 경배

역사의 종말에는 예배의 대결임을 계시록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계13장과 14장은 예배의 대결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3장에 5회나 “경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4,4, 8, 12, 15절이다. 이것은 모두 용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말들입니다. 14장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은 한번만 나옵니다(7절). 나머지 둘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대한 경고로 9절 11절에 나옵니다.

사단은 경배를 받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창조주 경배를 할 때 비로소 인간의 존재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창1:26,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

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4: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경배 받으실 분명한 이유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존재 원인이요 존재의 보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그런 사실 자체가 곧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그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의 존재를 회수하십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이 자체로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가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외의 누군가가 자기의 신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공급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가까운 분이 부모입니다. 부모를 모르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분명히 아는 것은 곧 자기의 부모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는 자기 부모의 존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11년 만에 이혼 수속하는 부부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부부가 대판 싸움을 하고 부인이 보따리를 싸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싸우는 동안 아이는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생각에 아빠가 아이를 돌보겠거니 했고, 아빠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겠거니 하여 서로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년 만에 정식으로 이혼 수속을 밟기로 하여 만난 자리에서 아이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다가 비로소 아이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아이가 어떤 고아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13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그 아이는 서 씨 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씨였습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누군지 바르게 가르쳐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소년이 자기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존재는 그의 부모가 계신다는 증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그 결과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부모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한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이며, 창조주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경한 부모가 계

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곧 자기의 정체가 확실하다는 신분의 보증이기도 하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봅시다.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과 창조주 경배가 연관되어 전해집니다. 심판과 창조주 경배가 어떻게 연관됩니까?

심판과 창조가 연관된 말씀이 몇 곳 있습니다.

[계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는 라오스와 디카이오스의 합성어입니다.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말이고 디카이오스는 의롭다고 판결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판결을 받은 백성이라는 말로 심판받아 의롭다고 선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는 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납니다.

[벧전4:17-19]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도 심판할 때가 되었으니 그 영혼을 창조주께 부탁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두 심판과 창조가 관련된 말씀입니다.

심판은 여호와라 이름 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그 존재를 창조주께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경배하지 않으면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창조주를 모르면 자기를 모릅니다. 부모를 모르면 자기를 모르듯이 말입니다.

창조주가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부자(父子)의 관계가 회복되며 참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그 존재가 지극히 존귀한 것을 알게 되며, 다른 사람도 지극히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짐승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시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사상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무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존귀한 존재며 그 창조주와 사람은 부자관계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기별입니다.

[신32:6]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일으킨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할 일이 바로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4:5,6]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

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부모를 알아야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아는 것은 부모를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8:19]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의 존재와 생명은 부모가 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을 효도라 합니다.

[출21:15] 자기 아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21:17] 그 아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도덕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존재론적인 명령입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원인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를 회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 있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며 경배하는 것을 신앙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 존재의 합리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효도와 신앙은 대상은 달라도 사상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의 제 4,5계명입니다. 제 4계명은 신

양의 이유를 계시하고 제 5계명은 효도의 당위성을 가르칩니다. 이 두 계명은 존재와 생명의 근원과 그 계승(繼承)을 계시합니다. 레위기에는 이것을 한데 묶어 계시하고 있습니다.

[레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날 세상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모르고 짐승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진동하여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바른 경배를 하고 이웃도 존귀하게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과 창조가 이렇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이라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친 아버지로 모시게 된 기쁨이 얼마나 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곧 자기와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는 생활의 표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기별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아서 경배함으로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회복하라는 기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를 영원히 반납하는 심판에 이ms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한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존재를 상실합니다.

사단은 이런 기별이 전파되면 자기의 정체가 폭로되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을 알고 미리 거짓 사상들을 일으켜 온 세상을 덮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별을 전파하는데 큰 장애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별의 확실성을 알고 우리교회가 바로 이런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기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은 이런 뜻으로도 참으로 중요한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그것은 영원한 구원의 기별입니다. 존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별입니다. 창조주요 재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된다는 복된 기별입니다.

6. 성령 충만 바르게 알기

(예언의 신 바르게 알기)

序; 이 장은 배정된 시간 외의 강론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강론이기 때문에 함께 실어서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함께 올립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성령의 충만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교회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오해 없는 이해로 예언의 은사 곧 예언의 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성령이 충만한 것이 참으로 어떤 상태인가?

신약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15회 나타납니다.

1. [눅1:15,16]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2. [눅1: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3. [눅1:67]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4. [눅4: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5. [행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6. [행4: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7. [행4: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8. [행6: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9. [행6: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10. [행7:55]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11. [행9: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2. [행11: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13. [행13: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4. [행13: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5. [엡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라는 말 플레로마는 플레로오에서(플레도, 플레레스) 파생한 말 들인데, 가득 찬, 꽉 찬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열 다섯 절이 거의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 또는 가슴이 뜨거운 열정을 나타내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성품이 확 변한 것, 등등으로 생각하지 않는지요. 이런 것도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행1:8). 은사는 고전 12장 14장 롬12장 엡4장 등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침례요한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 개인적으로도 경험하는 일이지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성령의 늦은 비 역사는 성도 개인에게 일어날 역사이지만 그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성도여야 합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나라들에서 과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제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사도행적 54).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모든 경우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없을는지 몰라도 초대에도 교회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그 광야는 교회를 표상합니다(행7:38). 바로 이 광야에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느9:19,20] 주께서는 연하여 공흘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20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오순절 때에도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것처럼 역사적(歷史的)으로 성령의 역사(役事)는 교회 안에서 교인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 필요에 응하도록 역사(役事)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온전한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세상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교회에 예수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될 때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전1:5-7]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 수 없고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은 성령 충만한 경험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야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교회에는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있으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말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 개개인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림이 임박한 시기, 그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됨으로 교회 안에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그 때를 예언했습니까? 우리는 계시록 10장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계10:8-11]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퍼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갓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열리고 그것을 연구한 결과로 대 재림운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며, 그것은 꿀같이 달게 시작되었다가

아주 쓴 결과를 가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봉함된 책은 다니엘서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단12:4) 펴 놓인 작은 책이 다니엘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펼쳐지게 된 것은 바로 2,300 주야에 대한 이해로 일어난 재림운동과 그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에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 10장에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그 일은 계10장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있을 것이라고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언하는 일, 곧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에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적 증거와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역사적 성취가 있을 때에 일으킬 것이며 이런 역사적 시점에 일으킨 사람이라야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의 증거 곧 예언의 신(대언의 영)의 은사는 이 두 가지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신 것이 열 처녀 비유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 25장의 열 처녀 비유는(1-12) 재림 직전의 교회의 상태에 대한 비유입니다.

등을 가지고 등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은 열 처녀가 동일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5명은 그냥 등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등에는 기름이 있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등에 있는 기름으로 밤중까지 불을 밝히 켤 수 없었을 뿐입니다. 다른 5명은 등은 물론이요 등(燈) 외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불을 밝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등 외의 그릇에 주목하였습니다. 등 외에 기름 담긴 그릇은 무

엇일까요? 기름이니까 담을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3절처럼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있더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25:3,4]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이 성령이시라면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왜 그릇에 담 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했으니(시119:105) 성경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 뜻을 바르게 알도록 하시는데, 등 외의 그릇은 성경도 아니고 그것이 사람도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주석들은 등을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석이나 실물교훈에 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기름은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름이 담긴 등 외의 그릇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라고 말씀한 의도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림이 가까운 때에 있을 사건을 비유로 예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림이 가까운 역사적 시점에 성경 말씀의 빛이 가물거리며 꺼져갈 때, 그 빛을 밝게 해줄 기름을 담은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말씀이 아닌 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풍유일까요? 단순한 비유일까요? 풍유적인 면도 포함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비유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암8:11-13]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

지 못하리니 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오늘날 성경은 지천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으나 말씀의 기갈이 심한 시대가 아닙니까. 왜요? 기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인 성경말씀을 밝힐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을 담은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이신 **성령**을 통하여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성령의 증언으로 성경말씀의 불빛을 밝게 빛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하심으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 교회에 선지자가 회복될 것은 두 가지 확실한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증거와 역사의 증거이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셨지요. 이 증거에 의하여 우리는 성경이 말한 선지자인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지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예언의 신의 은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예언의 신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고전1:6)이고 예수의 증거(계12:17)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지요. 이 증거를 주신 분인 **성령이 바로 예언의 신**이십니다. 예언의 신이신 성령께서 바로 예언된 그 때에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사건이 있는 후 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성경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록된 증거의 글들을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의 신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령께서 그 종선지자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증거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화잇 부인 자신이 “예언의 신”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화잇 부인에게 임하신 예언의 신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일에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인을 지니고 있다. 이 사업에는 양편에 다 관련된 일이 없다. 증언들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 앞에 지나갔다.”(교회에 보내는 권면 93).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각각 각성하여 자신의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게 해야 한다. 원수가 우리를 쫓아 오고 있다. 우리는 원수를 경계하여 크게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하여 주어진 지시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때를 위한 진리를 사랑하고 이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로 강렬한 미혹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도와줄 것이다.”(교회에 보내는 권면 326).

이런 말씀들은 예언의 신이 성령이심을 화잇 부인이 친히 증거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교회가

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교회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 개인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굴복시키고(고후10:5) 예언의 신이신 성령의 증거로 인도를 받아 말씀을 깨달을 때 성도 개인이 성령 충만한 경험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재림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경험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 이 시대적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합시다.